제331회국회
(임시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2월9일(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
   가.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 포함)
   나. 외교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 2
   가.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 포함)
   나. 외교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중 제6차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2015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24일 구성된 이후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에 관한 주요 과제를 진단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주한주일대사 및 주중대사를 각각 초청하여 2차례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북핵을 비롯한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내일은 주한미국대사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가 초청해서 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러시아대사도 새로 부임했는데 아직 일정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 및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및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서 촉구한 대로 정부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실시 노력과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고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첫 회의인 만큼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통일정책과 관련된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듣고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

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업무보고
가.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 포함)
나. 외교부

(14시07분)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외교부장관은 뮌헨 안보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통일부장관은 상임위원회의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각각 차관으로 대리 출석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과 간사가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부장관을 대신하여 황부기 차관 나오셔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통일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일부는 2015년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일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통일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정책 여건, 정책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정책 여건입니다.

우선 도전적인 측면으로서는 최근 동북아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내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함께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이견도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 및 사이버 도발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 요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 측으로서도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가운데 경제회생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 첫째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둘째로 남북관계에서는 통일지향적 남북협력을 통해 작은 통일을 구현하며, 셋째로 한반도 평화정착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해 나간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는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준비 인력 양성, 남북대화 추진 및 민생·환경·문화통로 개척, 호혜적인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민주평통 등과 협업을 통하여 통일헌장 제정을 추진하는 등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별 통일업무 전담관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사회적인 통일문화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 통일박람회 2015 등 통일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통일 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인 통일문화스페이스를 조성하며 평화통일상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통일준비 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교원 및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혁신처 등과 협업하여 공공부문에서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북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여 현안 문제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민생통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협의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농축산 물자 제공 및 기술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와 산모를 통합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도 확대해 나가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통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묘목·종자 지원, 산림 병충해 방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공동하천인 임진강·북한강의 공동 관리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4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문화 통로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각자 서울과 평양에 개설하여 민간 사회문화 교류 지원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고구려 고분군 공동 발굴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 씨름과 같은 유·무형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등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호혜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연계하여 모자보건, 민생·환경·문화협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구상의 실현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NGO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협력사업도 발굴·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북한 태도 변화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및 주변국과 협력하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기구가 함께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교부와 협업하여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통일준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변 4국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외교전략 수립 및 연구,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 및 주변국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남북 간 공유하천의 공동 활용과 북한 자원 공동개발 방안 그리고 북한 내 산업인력 육성 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남북 간 이질화 극복 방안과 개성공단에서 모자보건 시범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법제도분야에서는 통일헌장을 제정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통일준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황부기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장관을 대신하여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조태용

입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금년도 업무보고 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준비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통일준비·북핵외교 추진 방향과 최근 대북정책 관련 한미공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올해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통일준비·북핵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의 흐름을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공조 및 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 북핵·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변 4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한중 관계가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 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주변 4국과의 공조를 보완하기 위해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미·일 간 북핵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8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동북아 3국 간 협력을 복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 제2차 정부간 회의를 주최하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제안했던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등 분야별·기능별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라시아 구상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출발해 중국, 중앙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로 북한 도발 시 유엔안보리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3월 말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하는 등 대 유엔 외교를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두 번째 목표는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선 신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보호 및 안전 이송,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재난 구호, 난민 보호, 보건 외교, 개발협력 등에 중점을 두고 통일지향 인도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처한 인도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인도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다란 분야입니다. 나아가 향후 통일 과정을 염두에 둘 때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로 통일에 기여하는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하고 통일경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지원, 한·중·일 FTA 협상, TPP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외교업무의 세 번째 목표는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통일 기반 조성 및 준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통일외교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협력 네트워크 확충 차원에서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외교장관회의를 상반기에 주최하는 한편 지역기구들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2차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주에 개최했고 체제 전환을 경험한

중유럽 4개국과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을 보다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통일 공공외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맞춤형 공공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통일의 혜택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알리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쪽, 북핵 외교입니다.

최근 북한은 병진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화의 전제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우리 측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상 이미 금지되어 있는 핵실험과 우리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연계시키는 제안을 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3~4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등 계기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계속 견지하면서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중·일·러와의 5자 간 공조, 한미일·한미중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인기,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칭 도발 억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핵·인권·사이버 해킹에 대한 중층적 대북 압박과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양자, 다자 차원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금년에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의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토대로 5자 간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핵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여 6자회담 프로세스 또는 다른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중을 포함한 5자 간 다양한 양자 및 3각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핵 관련 남북 간 직접 협의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들어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월 28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대화 재개의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3자 간에 공동 이해가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있었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이에 대한 중국과의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조만간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5자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최근 대북정책 관련 한미공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와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 행정명령 공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하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미측은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를 포함해서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측의 입장은 지난 2월 7일 있었던 한미외교장관회담 및 최근 연이어 있었던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방한 계기에 재확인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

미 양국 간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견도 존재하지 않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대통령님의 연내 방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6일 미국 정부의 대통령님 연내 방미 환영 발표 이후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관련 후속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 최상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비핵화, 인권상황 개선,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3대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 이슈 간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조태용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통일부와 외교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통일부차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THAAD) 배치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말씀이나 저희 쪽 또는 중국 측 제 각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게 우리 잘못인지 미국의 잘못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보는데 중국 쪽에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중국 측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향후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사드 문제는 사실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주무부처로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함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우리 쪽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요청을 했다든지 또 우리하고 미국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블링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랑 만났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협의나 요청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특히 우리 기자들한테, 언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직까지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중국 측하고 한국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우리의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따져 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보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결정의 이유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측과 마음을 터놓고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은 하지만 결정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설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2014년 9월 30일 날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외교협회 간담회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리 국방부 대변인께서는 2014년 10월 2일이지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어떠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사실 국방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혼선을 주는 게 뭐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말씀을 올리면, 미국 측에서 국방부 부장관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사실이 다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국방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거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아서 협의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한국에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중국 쪽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울러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2일 날 인터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황이랄까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굉장히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오바마 대통령 언급을 제가 재해석하는 입장이 됐습니다마는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갈구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고 북한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이 있을 때 그런 정보에 기초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나라를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정부가 존속하기 어렵다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그런 자유로운 정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다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본 것은 미국의 영어교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함진규 위원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委員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유재중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러시아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뜻을 수차례 밝히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차례 참석하겠다는 것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참석 여부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외교부는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어디까지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우선 김정은이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절에 참석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긍정적인 북한의 반응이 있었다고 밖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북한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주시하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도 초청장이 왔습니다마는, 러시아 전승기념절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는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얼마만큼 정상들이 참석할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

통령님 외교일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좀 있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柳在仲 委員 그래요, 국제적인 이해관계로 지켜보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렇습니다.

○柳在仲 委員 거기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해 가는 핵심이 되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그렇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래서 남북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서 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남북관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고려할 때 요소로서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柳在仲 委員 남북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북한보다도 우리가 좀 더 양보하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의 시초가 된다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알겠습니다.

○柳在仲 委員 통일부 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柳在仲 委員 지난달 4일 한 경제연구소의 한반도 평화지수 보고서에 보면 통일·안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평화지수가 지난 분기에서 4.8포인트 오른 44.1%를 기록하면서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 관계 전문가들도 어떤 형식이든 방식이든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柳在仲 委員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통일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평화 전문가들도 하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柳在仲 委員 아마 이렇게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같은 일시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남북갈등보다도 남남갈등도 또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가 남남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국민적인 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리고 차관님,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니까 이산가족상봉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조건으로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북측에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향적으로 나가야지요, 전향적으로.

○통일부차관 황부기 이산가족상봉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이산가족상봉이 시급한 문제고, 특히 금번 설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산가족상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지난번에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서 5·24조치 해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하고 대화와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회담 이전에 전제조건을 제시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모든 문제를 회담장으로 나와서 회담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柳在仲 委員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柳在仲 委員 지난달 20일에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까?'라는 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들었습니다.

○柳在仲 委員 이렇게 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 외교부에서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柳在仲 委員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미국에서 지금 소니사

해킹 이후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양자 압박과 제재조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겠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래서 재지정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고려하는데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柳在仲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통일부차관, 지금 가뜩이나 남북 간의 대화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신 것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노웅래 위원 회고록에 보면 남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협상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했다느니 정상회담 조건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노웅래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에 이게 적절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적절해요, 적절 안 합니까? 바람직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정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통일부차관 황부기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뭐가 적절치 않아요? 장관이 지난 6일 날에 MB 회고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급하는 게 뭐가 적절치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관이 6일 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노웅래 위원 입장을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요……

○노웅래 위원 장관이 밝혔는데 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니,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바뀐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장관이랑 같은 생각입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노웅래 위원 이러니까 통일부가 통일이 아니고 반통일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도 아니고 왔다갔다 입장을 하시면 통일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장관이 또 얘기하시기에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5·24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5·24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담이 재개되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고 그러한 현안들이 논의되게 되면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러니까 5·24조치 문제도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면 당연히 그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요, 논의를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해제를 하자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노웅래 위원 그러면 매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혀 진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거지요?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까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하겠다. 통일준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노웅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 제안하겠다라고 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언제 제안하실 겁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

○노웅래 위원 이 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면 물밑접촉이 있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지 않고서는 허황된 수사적 구호, 그냥 말뿐이잖아요.

지금 아무런 준비, 만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물밑에서도 만난 것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던져 놓은 거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갖고 어떻게 남북대화가 되고 뭔가 진전이 생기겠어요.

더더군다나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개설 추진하겠다, 이것도 서울과 평양 양쪽에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올해에 저희들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앞으로 대화가 재개되면 하여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북한과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대화가 되면'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 대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 11일 날 우리 쪽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는데 북한이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북쪽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온 이후에 남쪽에서 회담을 재개하면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해서 우리가 10월 13일 날 다시 고위급 접촉을 제의를 했는데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9일 날 세 번째로 우리가 북쪽과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남북대화의 재개 모멘텀이 마련되면 여러 가지 제시한 사업들을 북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하여튼 최선만 다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외교부!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쟁 70주년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참석하는 게 불확실하다면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 측에서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우리도 참석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위원님, 우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초청을 받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수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노웅래 위원 참석은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것은 많이 예단해서 가정을 깔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가실지 자체를 아직 저희가 결정

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노웅래 위원 가는 게 바람직해요, 적절치 않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변수를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변수를 따져 갖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5월 9일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황부기 차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장관이 지금 참석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거기서도 아마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기왕에 장관의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통일부장관의 입장을 묻는 게 나올 텐데, 질의가 아마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과 오늘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할지 조율을 한 바가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은 국회……

○위원장 원혜영 조율한 바가 있냐고요. 오늘 이 위원회에 올 텐데 그런 질의가 나올 때 어떻게 답변할 건지 또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할 건지 조율하신 바가 있냐고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특별히 조율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지금 정부의 소통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지적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평소에 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책임 없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항상 있는 일인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준비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돌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이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언급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차관 얘기대로 하면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에서 전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전에 장관이 한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조차 장관·차관 사이에 준비가 없이 와서 장관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차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통일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 본의는 아니겠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부처의 태도, 부처의 책임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장관께서 답변한 그런 포지션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잘 못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국민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존중해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다음으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委員 외교부차관님께 한 가지, 그리고 통일부차관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 차관님, 작년 연말에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위원님들 몇 분하고 정보위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그때 IMEMO 부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북한하고 그렇게 불러 주느니 마느니 하고, 잘못 사인을 주면 지금 북한하고 있는 것이 마치 바른 일인 양 러시아가 뒤에서 밀어 주는 것같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초청 문제는 오바마에서부터 김정은까지 싹 다

했습니다. 특별히 의미를 둘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 계기마다 북한이 잘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승기념일에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셨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의 정상을 초청을 했고 10년 전에 60주년 때도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초청했었습니다.

○金光琳 委員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분이 북한의 무역사무소 소장도 하고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친남한 쪽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청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봐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참석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때 가능성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우선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많은 정상을 초청을 했고 러시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 20개국 정도 정상이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북측에서도 오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팩트고요.

○金光琳 委員 북측이 오겠다고 답이 왔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북측에서 오겠다고 했다고 러시아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직접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5월 9일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가는 문제는 꼭 남북관계 차원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고 한러관계라든지 국제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에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여러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참석을 할 것인지를 놓고 아마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들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光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황 차관님, 아주 구체적인 업무보고 고맙고요.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남북관계하고 대북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작년에 전문가 100명, 금년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14년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다' 하는 게 82%였는데 금년도 같은 시점에는 '개선될 거다' 하는 전망이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연초에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물건하고 빨리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매일경제에서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조사를 한 게 '5·24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57%, 그리고 나머지 현 정책 유지, 북한 존중, 6자회담 이런 것들은 5%대로 '유연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떠냐 하면 아산정책연구원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71%거든요.

이렇게 국민감정하고 남북관계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설문조사는 조사된 시기라든지……

○金光琳 委員 시기는 1월 초 같은 겁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대상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24조치 문제 같은 것은……

○金光琳 委員 아니, 자꾸 이렇게 해설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국민감정은 이렇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통일부가 국민감정을 바닥으로 깔되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든지 국익을 생각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통일부차관 황부기 둘 중에 어느 쪽 하나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전문가들의 입장 그런 부분도 존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로서는……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을 앞으로는 통일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취하겠다 이

런 이야기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전문가 입장 이런 부분도 좀 더……

○金光琳 委員 이 부분은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두 번째, 금년도 1월 19일 날 통일부가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언론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의식한 사업들로 통일준비가 되겠느냐' 동아일보, '남북 사업 본격 추진 북 호응 이끌기는 글쎄', '장밋빛 통일 사업 실현 미지수', 또 조·중·동은 이렇게 봅니다. '5·24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은 빠져 있다',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겁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류길재 장관이 어느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만나다 보면 5·24 해제 등 이런 것도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5·24 해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일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내부적으로 논의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金光琳 委員 다시 얘기해 봐요. 어떻게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논의가 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金光琳 委員 '부분'이 아니고 논의된 적이 있느냐……

○통일부차관 황부기 5·24와 관련된 논의는 있었습니다.

○金光琳 委員 전보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통일부차관 황부기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인해서 5·24조치가 취해진 거고요.

○金光琳 委員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달라'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 앞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의 마음, 국민적인 생각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요. 5·24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가 재개되면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황 차관님, 이 질문 미리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논의를 안 했나?

○통일부차관 황부기 아닙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의 통일정책 수립 내용들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유연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金光琳 委員 정리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황 차관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우선 조태용 외교부차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차관이시다 보니까 중국 쪽의 고위 관계자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저도 여야 젊은 의원들이 3박 4일 동안 1월 중하순에 중국에 가서 외교부를 포함해서 고위급들을 좀 만나고 왔어요.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중국의 태도는, 더구나 사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협의라든가 요청은 없었다'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나 아니면 한미연합사령관 등등의 그동안 발언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중국은 이 문

제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 이 특위에도 지난번에 중국대사가 와서 직접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에 대단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밑에서 개별적 의견 교환이든지 또는 비공개 단위에서 논의가 되든지 간에 결국 이게 이후에 논의 테이블로 오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중국을 다녀오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부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그냥 상황만 회피하는 식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드를 배치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이번에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후의 한중관계,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우호적이고 교역 면이라든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지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한중관계가 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그냥 답변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우선 여쭈어 봅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요청이나 협의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답변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하고의 의견교환 같은 것은 앞으로도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것이 사드가 됐든 다른 식의 어떤 미사일 방어망이 됐든 간에 배치를 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만일에 사드라는 것을 배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드에 배치된 기술이 중국에 실제로 안보 위협이 되는지 등등을 따져 가면서 중국 측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저도 전문적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위 핵심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으면 사드 자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야당 위원입니다마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남쪽의 국민들을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 설득을 하려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최소한 그렇지 않고는 대북 미사일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러면 중국도 더 나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다각도로 노력해라 이 논지를 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이 사드 문제의 전제인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더 얼마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을 동원해서 당사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은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면 5자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다각적인 협의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대화 재개의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공동이해가 도출하고 있다인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 공동이해가 도출됐다 또 5자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진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표본의 수사가 이렇다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수사는 아무래도 다섯 나라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조금 추상적이 됐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가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공감대를 하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비핵화 대화를 빨리 만들어 내야 되겠다,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되겠다는 데 공감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에서는 대체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것이 조만간에 가시적인 어떤 테이블이든지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데 거기의 전제라면 전제가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핵무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해야 저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지 만일에 그런 약속 없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른바 핵군축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재확인 받고 그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프로세스를 여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오늘 아까 러시아 전승기념일 초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북핵 문제나 또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좀 지렛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외교부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신중을 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지 않나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 북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습니다. 북러관계는 오히려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을 따로 우리가 각자 추진해서, 남북이 추진해서 만나면 좋습니다마는 서로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장을 통해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 내도록 좀 주도성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너무 눈치 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주도성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주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데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존재감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더 있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꼭 남북한 관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남북관계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그것보다는 커다란 나라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저희의 국익 관점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익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상황을, 이런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통일부 황 차관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오늘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대화를 위해서 전제 없이 나서자라고 남과 북이 똑같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마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우습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이건 북이건. 그런데 이게 속내가 진짜 전제 없는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냥 똑같이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자라면 언제까지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진 통일준비위원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5·24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걸어 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풀기가 어렵다라면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위에서 5·24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지금 진척이 없어요. 그냥 서로 대화하자, 대화하자만 계속 공허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올해 넘겨버리면 정치적으로 이제는 내년, 내후년에 남북관계 진전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시기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

지 사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와 닿지 않아요. 이 문제만 하나 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간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관계의 진로를 위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민간 쪽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하면 저는 급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 하여튼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입장을 말씀을 드려 왔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회담이 재개되게 되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논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12월 29일날 정부가 북쪽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는데, 제의하면서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지 하여튼 북쪽이 제의를 해 오면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같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계속 세 가지 전제조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회담이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5·24조치나 금강산 재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풀기 어렵다면 민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의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최소한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잠깐 미루어 보자라든가 그래서 우리의 최소한의 성의를 한번 북한에 보내 보자라든가 통일부의 입장에서 그런 자기주도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수 위원 인천 서구강화군을의 안덕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보고나 또는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남북관계 해결이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승전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을 모두 초청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그렇습니다.

○안덕수 위원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교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부분에서 봐야 될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봐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울질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안덕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 정상회담 대가로 상당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남북관계 회담이라는 게 이거를 보면서 여태껏 회담한 것이 전부 공염불 회담이 아니냐? 보세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 나간 사람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나간 사람이 그 회의에서 뭘 얻으려고 하겠어요? 돈 얻었고, 남한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내가 여기에 나온 목적은 돈을 받는 거니까 받아서 내 얼굴 보여준다 하는 사람하고의 회담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문제가 있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나 국제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이번에 만날 경우에 어떨 거냐 하는 것이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겠지만 이런 데로 좀 끌어내고,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해 가지고 그런 데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일단 말문을 트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도 아까처럼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할 생각인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통일부하고 협업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천안함 폭침도 사과하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 그거는 사과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식의 협상이나 그런 식의 대화는 아무리 해 봐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대신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북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회담의 성과를 북한에서 갖게끔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뒤로 모르게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대화 전제로 요구한 것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 그랬잖아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안덕수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이, 어떤 단체는 사전에 우리가 살포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살포를 하니까 북한에서도 살포에 대비했다가 포격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공표하면 그거는 나는 정부에서 딱 제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부 몰래 전단을 뿌리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북한에 할 얘기가 있지 사전에 발표까지 하고 전단 뿌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도 판단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그거 발표했다는 자체는 '야, 내가 발표하니까 너희들 하려면 해라', 이미 선전포고 비슷한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한다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대북전단 살포 이 문제는 살포하는 단체들이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부지법에서 판례가 나왔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판결문을 보면 앞에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지역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례 내용이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번 통일부의 국장이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을 면담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살포하는 단체들이 좀 지혜롭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아니, 그 단체가 지혜롭게 하는 거는 좋고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공표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위해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선별적으로, 그런 경우는 정부가 제지를 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걱정도 덜어 주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제지시킨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다 맡길 일이 아니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걸 제지하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 나는 그게 이 판결문에도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고요. 그러한 입장이 지난번 의정부지법 판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안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과거에는 외교·통일·국방 해서 국방부가 주관해서 업무를 보고했었는데 금년에는 통일부가 주관해서 업무보고를 했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업무

보고하는 포맷은 4개 부처가 같이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다만 장소를 국방부에서 작년에 했고요.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국방부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주제가 통일준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외교안보수석실과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 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는 대화 쪽으로 의의를 둔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 이후에 약 8년째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정부 3년차, 금년에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남북관계를 힘 있게 밀고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시간의 한계성 이것이 하나고요.

만약 그렇게 돼서 또다시 미뤄진다면, 8년이 9년이 되고 9년이 10년이 되면 남북문제는 완전히 분단의 고착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돌파해야 되겠다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차관께서 우리 정부가 세 번이나 정식 제안을 했는데 북한의 회답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박병석 위원 그런데 북한도 작년에 보면 세 차례 제안을 했었지요, 2014년에?

○통일부차관 황부기 ……

○박병석 위원 제가 좀 얘기해 볼까요?

북한이 작년에 국방위원회 이름으로도 하고 세 번 대화 제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북쪽에서 제기한 바가 있고요. 비공개 접촉이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2014년 신년사 이후부터 1월 16일 국방위의 중대제안이 있었고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이 있었고 7·7 공화국 정부 성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남 대화 제의를 해 왔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7·7 선언 같은 경우 그 내용 중에 분명하게 회담을 제의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박병석 위원 그러면 7·7을 빼더라도 1월 16일 국방위 중대제안과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 등등이 있었고 신년사에서도 전향적 자세를 밝혔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조건을 완화해 가면서 대화 제의를 하고 북한도 계속 대화 제의를 해 오는데 성사되지 않고 있어요.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북측과 대화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특히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광복 70주년의 모멘텀을 살려서 하여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박병석 위원 아니, 양쪽이 다 제안을 하면서도 실제 성사되지 않으면 왜 그런가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조건이 완화됐단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박병석 위원 가령 5·24조치 같은 경우도 일단 대화하면서 논의할 수 있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천안함사건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전제조건을 사실상 완화해 가면서 했는데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보면 자꾸 타이밍을 놓친다, 우리가 선제적인 제안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가령 소위 북한 황병서 일행이 왔을 때도 대북전단만 뿌리지 않았으면 성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결국은 내주면서도 효과가 없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타이밍의 실기다……

따라서 앞으로 대화를 성사시키려면 북한이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또는 그 정도 수준에 탁 맞춰 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자꾸 늦추고 시간 끌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가령 이번에 통일부장관이 5·24조치 해제의 가능성을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무슨 어디 대학 강연 가서 하지 말고 딱 정부 성명

으로, 그게 정부 입장이라면 딱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측에 정식 제의한다 하고 제안을 해야지 옆집 북한에서 생각할 때 '어? 통일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디서 했어?', '무슨 세미나에서 했대'……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렇다 했을 때 설사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자꾸 타이밍도 놓치고 그 방법(how)도 자꾸 놓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2월 달 구정 전후한 이산가족상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정 직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 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2월 하순부터는 또 한미연합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간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꾸 시기를 놓친다, 다만 우리가 전략상 시간에 쫓겨서 많은 것을 내주거나 우리 패를 완전히 보여 줄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 하는 것이고요.

외교부 차관께 우선 하나만 물어보지요.

북미 간의 대화, 성 김 전 대사, 성 김 6자회담 대표, 북미 접촉을 지금까지 보도된 것에 보면 미국은 북경에서 만날 수 있다 하는 요지의 취지이고 북한은 만날 용의는 있는데 성 김이 평양에 들어와라 그런 내용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저희가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성 김 대사 쪽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소 문제가 한 가지 이견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지금 북미대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거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는 한미의 굳건한 공조가 기본이 돼야 되지만 미국에 있어서 북한의 문제는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의 문제지만, 대한민국은 당사자의 문제고 우리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북한에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외교부로서는 남북 간의 비핵화 대화도 주도적으로 제의하고 북측이 호응한다면 가질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월 달 러시아에 대통령이 가시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을 주도로 해서 서방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국제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러시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다른 서방국가와 대한민국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거는 그러한 보장이 있어야 될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정세도 잘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의 당사자로서의 남북관계의 돌파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남북관계가 워낙 미묘한 일이라서 장관님 생각, 차관님 생각 다를 수도 있고 또 질문도 다각도로 나오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선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

다.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 같은 국제사회에 불안을 초래할 때마다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외교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경제적인 제재였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어떤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 대북 경제제재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거나 또는 이란 대통령 하산 로우하니가 2013년인가 대통령에 선출된 뒤에 미국 등 서방과의 핵 협상 사건, 두 국가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두 국가가 이미 석유 수출 등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깊어진 상태에서 핵개발로 인한 대외관계의 악화를 고려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미루어 봤을 때 대북정책의 방향을 북한의 경제적인 의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지금까지의 미국, 이런 서방국가의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또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율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또는 향후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우선 존경하는 양 위원님 분석하신 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경제가 세계경제랑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가 이란이나 리비아의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북한의 경제를 세계경제와 좀 더 가깝게 연관을 시켜서 의존도를 높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개성공단 같은 것 유지하는 것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세 차례나 시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고 핵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주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다음에 통일부차관님께 질의 겸 요청을 해야겠어요.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무엇보다 국민들 간의 통합이랄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 간의 소통·통합은 우리 남한 내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통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사전준비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노력 중의 하나가 탈북주민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연구 또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원을 통해서 탈북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초기에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현재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이 몇 명 정도인지 또 몇 명 정도가 하나원을 거쳐서 사회로 진출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작년 말 현재로 우리 사회에 들어온 탈북민 전체 수가 한 2만 7519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한 2만 5000명 정도가, 이 하나원이 좀 늦게 생겼습니다. 2만 5000명 정도가 하나원 교육을 거쳐 갔습니다.

○양창영 위원 제가 이 회의에 앞서서 탈북주민들의 남녀비율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선 탈북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특히 하나원에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여성비율이 한 70~80% 되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말씀하신 대로 여성비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양창영 위원 여성 건강, 여성들에 대한 진료 현황,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건강 지도—북한에서 워낙 어렵게 있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최근 탈북주민들의 범죄 연루 현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적응 사례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따른 조치가 시급한데, 현재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 맞는 어떤 정확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 유형 같은 탈북주민을 특정해서 범죄자 현황도 파악하시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 또 더욱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북주민들의 범죄 유형, 현황 파악 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대책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가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데 힘든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상해라든지 마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절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하나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런 범죄와 연루가 되지 않도록, 3개월 동안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법무부하고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 가지고 지역별로 하나센터가 한 30여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으로 배치된 탈북자들에 대해 가지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어려움을 지원하는 이런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맞이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의 대전환점을 만들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합의한 상황인데, 그것을 추진해야 될 주무 상임위원회의 질의응답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뭐가 되겠나 하는 그런 자조감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외교부 차관이나 통일부 차관 또 여러 공무원들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인데, 대통령이 어쨌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라,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라 했는데 지금 그 여건 마련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의 지시이니까 통일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하라고 업무보고……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런저런', 이…… 여기 지금 국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작든 크든 간에? 검토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정부로서는 실천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간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사업이 뭐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런 차원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갈래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을 최대한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심상정 위원 그것은 아까 보고서에 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제조건을 자꾸만 다는 것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으로 보나 같은 수준에서 지금 샅바싸움 하고 있는 이런 자세

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게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신뢰를 강조하시는데 신뢰라는 것은 외교적 실천의 결과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지 외교적 실천의 전제가 아니지요, 전제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천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게 전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 나는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외교부 차관 보고하실 때 6자회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5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암만 돌아봐도 사방이 깜깜해요, 사방이.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북전단 살포 그거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그거 왜 단호한 행정적 조치가 안 되는지,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가진 나라인지를 제가 아주 몰랐어요. 그거 왜 안 되는지,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다 도와줘도 안 되는지, 다 하라 그래도 왜 안 되는지……

5·24조치 해제 문제는 사실상 여권에서도 다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 공감대가 된 일도 집행이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중관계 문제, 제가 언론에서 박근혜대통령 임기 중에 제일 잘하신 게 뭐냐 생각하다가 딱 한 가지 떠올렸어요. 한중관계를 잘 푸셨다, 그랬는데 사드 배치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한중관계, 지난 2년 동안에 의원들도 수도 없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대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제적인 예방외교가 바로 이런 데 필요한 것 아니냐, '공식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미국이 분명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이 그것을 굉장히 문제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될 한국 정부가 선제적 예방외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답변을 여기 와서 하셔야 되지요.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체제 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여러 진영 간의 새로운 대립이나 갈등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북핵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또 6자회담 성사를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5·24조치, 2010년도에 중단되면서 대북사업 했던 기업들 피해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 대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 믿고 투자했다가 정부가 중단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앞으로 경협을 누가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피해규모가 4조 정도……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경협 기업 피해 합산이 그런데요. 보상한 것은 지금 15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5·24조치 해제와는 별개로 정부 믿고 투자했던 경제인들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도 지금 법안을 내놓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외교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외교부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통일부 소관이거든요.

○심상정 위원 통일부 소관이에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심상정 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5·24조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저런 지원 조치를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특히……

○심상정 위원 그동안에 제대로 추진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4조 규모인데 지금 1500 정도 이렇게 됐고, 또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그쪽 피해자들은 개성공단하고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부 믿고 투자

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의 1148개 중에서 303개가 휴·폐업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기업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이고, 다시는 남북경협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면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북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법 통과를 결의해서 남북특위의 결의로써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당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委員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金光琳 委員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통로 개척 거기에 모자보건사업 확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황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더 시급한 것은 결핵 문제입니다. 2500만 중에 1000만이 보균자이고 100만이 환자이고 매년 20만 명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어린애 낳으면 결핵에 걸리는 게 3%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것 좀 대북지원 확대할 때…… 민간에서는 약품하고 예산하고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통일부에서도 지금 허가를 해 주는데 북쪽에서 이걸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委員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북쪽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꼭지를 꼭 짚어 가지고 빨간 줄 쳐 가지고 그렇게 북측에 전달해 주시고……

특히 이덕행 국장 계시지요?

○통일부통일정책협력관 이덕행 예.

○金光琳 委員 이 국장님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북측에 전달해 주세요.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핵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정부가 하여튼 다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쪽에서 선별적으로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결핵 문제가 북한 내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북측에 제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저 끝에 한 줄 쓰지 말고 제일 위에다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북쪽에서 받아라. 약도 돼 있고 돈도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알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인데,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김정일이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다'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가 2009년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김기남 당시 북한 노동당비서 등 조문단이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 첫째, 두 번째가 조문단이 북한으로 돌아간 직후 8월 28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왔고, 2개월 뒤인 10월 10일 날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는데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더라' 하고 말했다고 회고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10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이 김양건과 접촉하고 곧 이어서 함께 태국 후아힌에서 아시안+3 정상회의가 열렸을 당시에 김양건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100억 달러를 요구해서 무산됐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쌀 50만t을 요구했다고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원자바오 전 총리는 12년 1월에 '김정은이 장기 집권할 것 같으냐?' 하는 질문에 대

해서 '역사의 이치가 그리 되겠나'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임 장관께서 2009년에 김양건 만났을 때 '아무 성과 없이 이대로 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말한 것도 아주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님하고 외교부차관님 답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통일부차관님, 회고록에 담긴 내용들 중에 정부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는지 차관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장관님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장관께서는 2월 6일날 특강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 답변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나중에 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명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지……

○통일부차관 황부기 전직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실……

○金光琳 委員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차관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설명하거나 바로잡을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을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께서는 '중국의 외교부가 회고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2월 3일 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리 외교부에 어떠한 입장을 지금까지 전해 온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委員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고록 분석을 착수했다고 2월 3일 날 서울발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래서 그 후에 어떤 게 돼 있는지, 특히 원자바오 전 총리 언급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소기의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은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게 발표가 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선 외교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시면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형성된 5자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6자회담 프로세스 가동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자 간에는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중요한 틀이 잡혀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북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북한과는 아직 협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북한과 협의를 하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북한 측에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비핵화라고 하는 기본원칙과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6자회담이 됐든 어떠한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측에서 그 점을 동의를 하고 나오면 저희가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과거에는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우리가 어떤, 미국과 한국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 '2·29 합의의 수준을 확실히 유지해라'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박병석 위원 그것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한 마당에 비핵화를 가겠다, 즉 핵무기를 폐기하는 목표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돌파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북한의 의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5자 간에 앞으로 세부 조율을 해 나갈 부분입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하고 현

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 고도화시키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아닙니다.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북한이 이런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행동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있을 행동도 있을 수 있고 회담을 시작하고 나서 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주 세부적인 조율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5자 간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6자회담의 틀이 빨리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대북지원을 해도 북한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통일부차관이 하셨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박병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레스덴 연설 이후에 하여튼 북쪽이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된 것이라면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받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도 있어 왔습니다마는 대체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 하여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그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어쨌든 지금 사실 정부로서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해 가지고……

○박병석 위원 제가 통일부차관에게 먼저 질문하고 외교부차관에게 또 질문이 갑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조차도 선별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가 작년에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고 북한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조금 벗어남으로써 여유가 생겼고 따라서 남북관계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고개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여유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어렵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북한경제가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북한관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환구시보인가요? 어느 단체 학술잡지에도 그게 보도가 됐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박병석 위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대응책이 안 나온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외교부 차관께서는 국제적 고립에서 다소 벗어나서 러시아를 통한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외교적인 활로가 조금 트였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더 좋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90년대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시대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북한의 경제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제와 대다수 주민들이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경제 사이에 좀 분리현상이 생겼다, 이중적인 경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여유를 가졌으니까 우리의 인도적인 지원도 선별적으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정권이 북한주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얼마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도적인 지원을 다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북한의 정권이 북한주민의 삶에 대해서 부여하는 중요성이 세계 평균적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작년에 북한 나름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에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나가서 죽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북한의 기준을 경제협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둔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뚜렷한 성과는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외교를 통해서 아직까지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력은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너무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같은 얘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들 대한민국 경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작년에는 재작년이나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런 의미이지 북한의 식량 사정이 해결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외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완전히 유엔이 제지하고 목이 졸려 있을 때와 달리 그래도 러시아하고는 이제 통로를 마련해서 탈출구를 마련했다의 의미이지 북한의 외교가 완전히 풀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선제적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황병서 일행이 왔을 때 대북전단을 과감하게 막았다면 그 협상 자리에서 5·24조치를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협상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질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대북전단 하지 말아 주시오 부탁하고, 장관이 이제 와서 5·24조치 해제할 수 있다, 북한 아무 반응 안 보이고. 왜 좋은 카드를 자꾸 놓치느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밀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곧 우리 통일부장관이 5·24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답변 줄 수 있느냐' 그런 사전 조치를 하고 정식으로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북한에 제안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찔끔찔끔 흘려가지고 그 좋은 카드를 다 버리느냐? 난 정말 잘못하고 있다, 앞으로 타이밍과 제안의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태용 예.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준비위원회를 포함한 통일부와 외교부 소관 통일정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로부터 주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간 통일을 위한 공동번영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숙원과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역사적 무게와 책임감이 여느 때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초 남북 양쪽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회담 성사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가 아직까지 양측 간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특히 상반기가 남북한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국회도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교류협력이 활발해져서 하루빨리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부기 차관, 조태용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 광 림	김 정 록	노 웅 래	박 병 석
박 홍 근	심 상 정	안 덕 수	양 창 영

원 혜 영　　유 재 중　　함 진 규

○청가 위원(1인)

이 목 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종 후
전 문 위 원	배 용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 교 부 제 1 차 관	조 태 용
통일부	
차 관	황 부 기
통일정책협력관	이 덕 행